



# 사형제도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0학번 이민하  
21학번 이종민  
21학번 안효범



# CONTENTS

|   |                                  |
|---|----------------------------------|
| 1 |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br>국내 외 사형제도 주요 현황 |
| 2 | 사형제도의 주요 쟁점<br>(찬성 및 반대측 주장)     |
| 3 |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
| 4 | 철학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
| 5 | 사형 집행인                           |
| 6 | 사형제도 관련 영상자료                     |
| 7 | 사례                               |

Miri Company

| About Us |

#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사형제도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을 말하며 생명형(極刑)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적용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임

고대부터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8세기), 고조선 8조법 등 고대 문명에서 사형이 규정되었으며 중세와 근대에는 교수형, 화형, 단두대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고, 종교적·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이후 인간 존엄성, 인권 인식이 확산되며 사형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사형제도는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존치와 폐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폐지 또는 제한되고 있음.



# 국내 외 사형제도 운영 현황

## 국내

- 한국에서는 형법과 군형법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등 많은 광의의 형법이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 1948년 제1공화국 출범 이후 1949년 7월 14일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 30일까지 공식적으로 920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음
- 사형제 폐지를 공약했던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하지 않고 있다.
-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오랜기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 국내 외 사형제도 운영 현황

2023

## 국외

국제앰네스티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6개국에서 1,153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음. 이는 2022년 883건에 비해 31%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이는 지난 10년간 국제앰네스티가 집계한 사형 집행 건수 중 최고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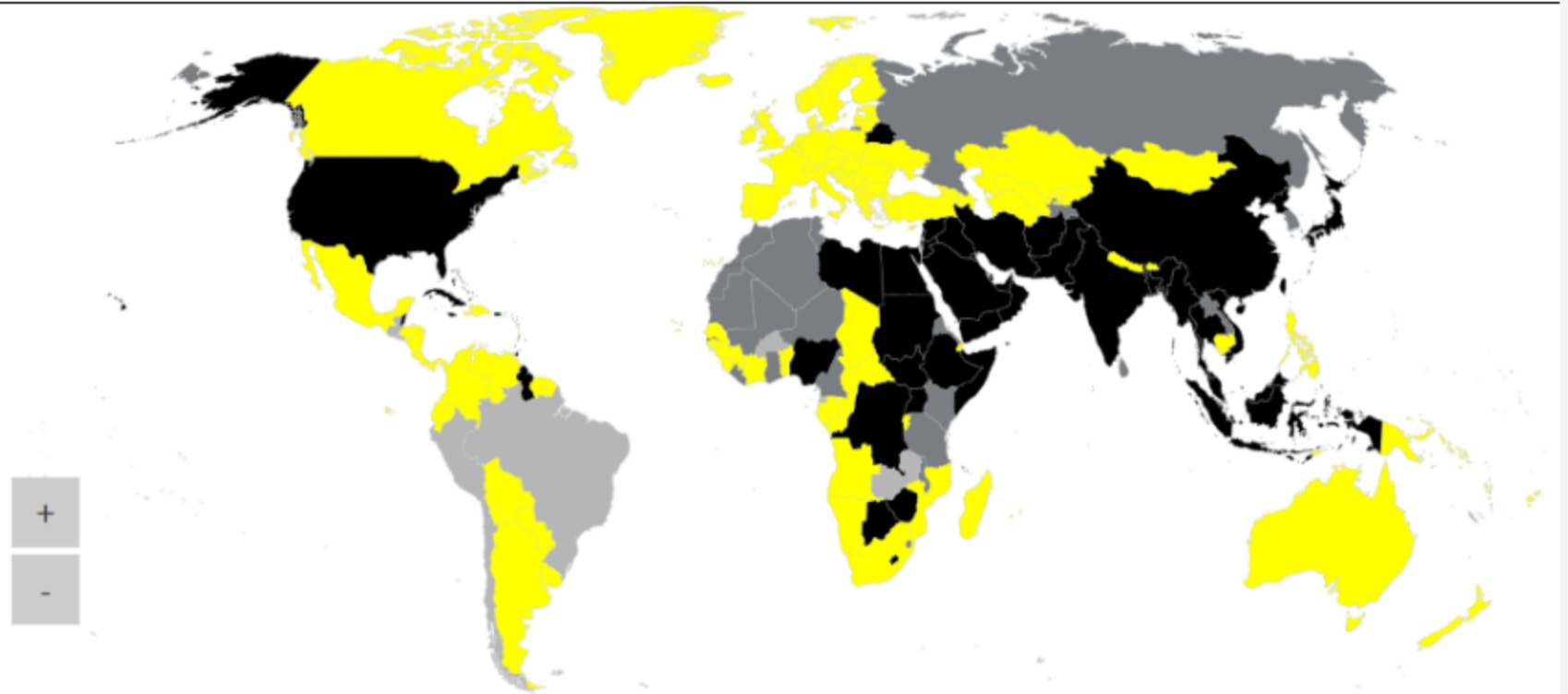
중국인 여전히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한 나라로 기록되었음. 하지만 중국의 실제 사형 집행 건수는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국제앰네스티의 전 세계 사형 집행 통계에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 건의 처형과 사형이 광범위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베트남 및 북한의 사형 집행 건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확인된 처형은 중국(1천여 건), 이란(최소 853건), 사우디아라비아(172건), 소말리아(최소 38건), 미국(24건)에서 있었다

사형 집행 국가는 2022년 20개국이었던 것과 비교해 2023년에는 16개국이었다 또한 2023년 말, 전 세계의 사형수는 최소 27,687명이었다.

<https://amnesty.or.kr/tag/%EC%82%AC%ED%98%95%EC%A0%9C%EB%8F%84/> 출처: 국제 앰네스티

SEARCH COUNTRY



ABOLITIONIST FOR ALL CRIMES

ABOLITIONIST FOR ORDINARY CRIMES

ABOLITIONIST IN PRACTICE

RETENTION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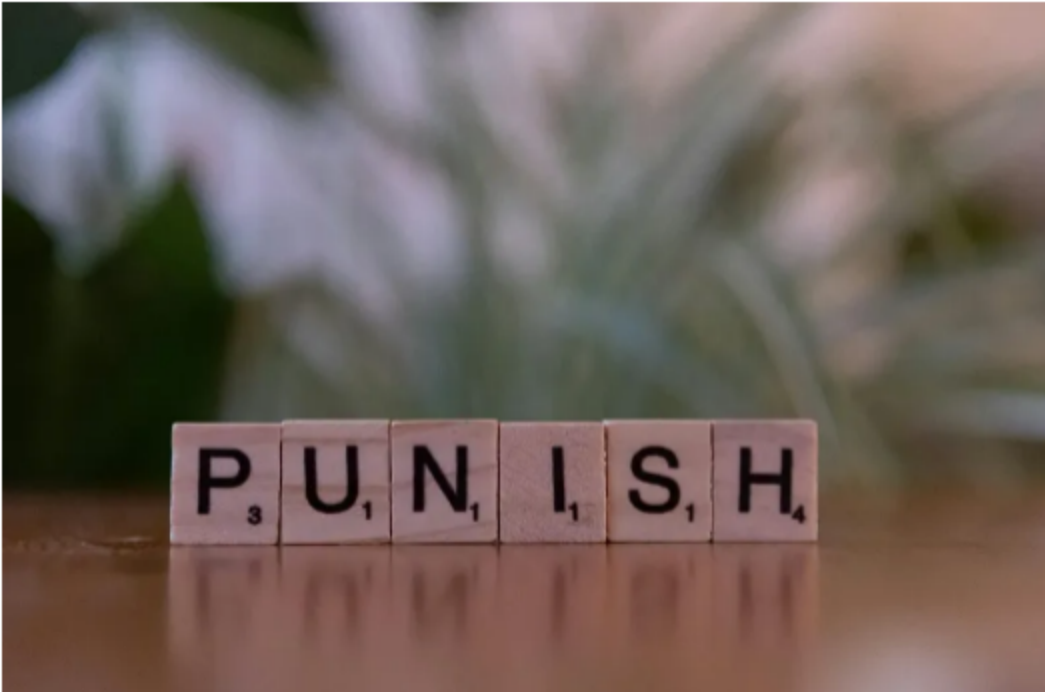
0% 25% 50% 75% 100%

1153+  
EXECUTIONS

# 사형제도의 주요 쟁점

## (찬성 vs 반대)

# 사형제도의 주요 쟁점 (찬성)



응보주의적 관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응보주의적 관점을 제시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범죄 예방 효과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어 흉악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함.



특별 예방 (재범 방지)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범죄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이는 종신형을 받은 재소자가 감옥 내에서 저지르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효과도 포함하고 있음

# 사형제도의 주요 쟁점 (찬성)



## 사회의 상태를 이유로 하는 존치론

사형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은 사형을 폐지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봄 ex 한국  
(세계유일의 분단국가)



## 국민 감정을 이유로 한 존치론

사형의 사실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의 확신으로 국민 대다수가 사형을  
요청할 때 이를 집행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한다고 봄

# 사형제도의 주요 쟁점 (반대)



오판

사형은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이며, 잘못된 판결이 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실제로 사형제도를 갖는 국가들에서 무죄가 나와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이거나 이미 집행된 뒤 뒤집힌 사례가 존재함.



야수화

어차피 사형당할 바에는 새끼 양보다 다 자란 양을  
훔치는 게 낫다.  
Might as well be hanged for a sheep as a  
lamb. - 영어속담



차별성·임의성 (Arbitrariness)

사형이 사회경제적 약자, 인종·민족 소수자, 변호인  
조력이 미흡한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향  
이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사형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  
정되는지 투명하지 않고 임의적인 요소가 많다는  
주장도 존재함.

# 사형제도의 주요 쟁점 (반대)



## 인도주의

인간의 생명은 무한대의 가치가 있으며 인간이 같은 인간을 심판하는것은 인도주의에 어긋나며 헌법 제 10조에도 위반한 사항임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형벌의 본질적 측면

범죄인도 국민이고 인간으로의 존엄을 보장받을 기회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범죄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교육 및 개선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국가 스스로가 이러한 의무를 포기한다면 형벌의 본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봄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사회복지 기본가치 전제에서 인간 존엄성의 원리는 모든 사람은 생명의 귀중함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그리고 존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즉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는 것' 으로 이성을 존중하는 것임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접근은 '인간존엄'에 근거함 따라서 사형제도의 찬반에 대한 입장은 모두 인간존엄에 기초함 사형제도 존치론자는 윤리적 상대주의, 사형제도 폐지론자는 윤리적 절대주의에 입각함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인간 존엄의 현실에 가까운 것인가?

출처: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이효선- [학지사]

#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범죄에 대한 처벌의 의미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상과 문제에 대해 책임과 자기 반성을 갖게 하며 사회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수단이 목적을 위배하는 목적위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 사형제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  
범죄에 대한 응징이 그들의 생사를 좌우 할 만큼의 정당성을 갖는가?  
다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함께하는 사회의 안녕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응징과 위협의 수단 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를 통해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이효선- [학지사]

**철학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 철학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칸트: 살인은 생명을 빼앗은 행위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이 도덕적 균형 회복이다 **도덕적 균형과 책임 있는 인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형벌의 비례성을 강조한다.** (응보주의, 도덕적 책임론)

루소: 범죄자는 사회 계약을 파기한 자로, 더 이상 시민이 아닌 사회의 적이다.  
**사회 질서를 깨뜨린 범죄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자기 보존을 위한 방어 행위로 사형을 정당화한다.**  
(사회계약론, 사회 방어론)

출처: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이효선- [학지사]

# 철학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벤담: '유용성의 원리'에 의해 형벌은 일종의 '필요악'으로서 정당화된다. 형벌을 통해 계속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행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 유용성의 원리)

베카리아: "사형은 한순간의 인상만을 줄 뿐이다."  
처벌의 정당성은 사회적 효용 극대화에 있으며, 순간적인 사형보다는 지속적인 종신형이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 (사회계약론)

사회 계약은 자연권 일부를 국가에 위임하고, 그 대가로 안전과 질서, 자유를 보장받는 체계이다.

루소와의 차이점: 루소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조건부로 위탁하지만 베카리아는 생명권은 생명은 자연권의 핵심으로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고 주장함

출처: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이효선- [학지사]

사형 집행인

# 사형 집행인의 정의 및 역사

사형 집행인은 국가나 법률 기관의 지시를 받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망나니 또는 참수인(斬首人)은 사형 집행인들 가운데에서도 머리를 베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형 집행은 상황에 따라 집행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경찰, 교도관, 군인을 통해서도 사형이 집행되기도 한다.

서유럽과 그 식민지에서 사형 집행인은 종종 이웃들에게 기피당했고,  
도축업자로서의 일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프랑스에서는 사형 집행인과  
그 가족이 배척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았다.  
한국에서는 백정이 전통적으로 사형 집행인과 백정 일을 수행했던 "불가촉" 집단이었으며  
일본에서는 사형 집행인들이 부라쿠민 계층의 일부로 경멸받았다



# 사형집행 방식

한국의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스형, 음독형(스스로 독이 든 약을 마시는 것), 약물주사형, 등 다양한 집행방식이 있다

## 사형집행인의 심리적 고통

일본의 경우 교도관 3명이 들어가 동시에 버튼을 누르면 나일론 밧줄에 목을 맨 죄수가 서 있는 발판이 열리게 된다. 어떤 버튼이 발판을 열리게 했는지 알 수 없게 해서 교도관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사형이 있기 전날엔 교도관들이 많은 술을 마신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많은 사형 집행인들 또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가지고 있음



“흉악범에게 사형은 마땅히 내려져야 할 처벌 아닌가요? | 사형제도가 본격적으로 기울어진 역사적 사건 | 인간을 적절하게 처벌하는 어려움에 관하여 | #골라둔다큐 2년전

# 사례

박군은 20대 초반이며, 가족이라고는 아버지 한 명이며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는 연쇄살인을 저지른 후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2심을 기다리며 자신의 죄에 반성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박군은 이로 인해 연쇄살인범 사형수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군은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의 사형만은 막고 싶어 감형의 방법을 찾던 도중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가 있다면 감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찾아가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죄 없는 박군의 처지가 딱한 것은 알겠지만 자신들도 소중한 가족을 잃었기에 감형은 절대로 동의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박군은 사회적인 낙인과 아버지의 사형 판결을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사회복지사에게 향한다.